

# 한국전래동화의 독서치료적 가치 연구\*

- 다문화가정을 위한 상황설정 및 상황분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Bibliotherapeutic Values of Korean Folk-tales: Focused on Establishing and Analyzing their Situ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김 수 경(Soo-Kyoung Kim)\*\*

### 목 차

- |                    |                        |
|--------------------|------------------------|
| 1. 서 론             | 3. 한국전래동화의 독서치료적 상황 분석 |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1 한국전래동화의 선정         |
| 1.2 연구의 내용, 방법과 범위 | 3.2 한국전래동화의 상황 분석      |
| 1.3 국내·외 연구동향      | 4. 결론 및 논의             |
| 2. 전래동화의 가치        | 4.1 결론                 |
| 2.1 전래동화의 다문화적 가치  | 4.2 논의                 |
| 2.2 전래동화의 치료적 가치   |                        |

### 초 록

이 연구는 한국전래동화에 의한 독서치료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과 한국에 현존하는 이중언어(한국-영어)로 된 27편의 한국전래동화 내용을 분석하여 5가지 상황적 요소로 나누었다. 생물학적(성별/연령), 공간적(가정, 또래, 사회), 관계적(수평, 수직, 단독, 기타)요소들과, 사건해결방식(자력, 조력, 자연, 미해결)과 8개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얻은 결과는 (1) 한국전래동화 내용에는 생물학적 요소에서 남자 주인공이 많으며, 연령별로는 어른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2) 공간적 요소로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많았으며, (3) 수직적 관계 요소에서 갈등을 많이 보였고, (4) 문제해결 요소에서는 외부의 조력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5) 주제 요소에서는 신념과 가족구성을 다룬 것이 많았는데, 신념 중에는 욕심과 지혜 등의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었고, 가족구성 중에는 효성과 계모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한국문화의 원형적인 가치들이며 다문화 가족과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독서치료적 가치가 될 것이다.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tract and analyze the bibliotherapeutic values/situations of Korean folk-tal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By analyzing 27 stories in the Korean folk-tale picture book written in two languages(Korean & English), we can find out 5 kinds of situational analysis as follows: (1) There are more men than women by the biological sex factor, whereas there are more adults than younger persons by the biological age discrimination. (2) For the space concept, there are a lot of socially related stories in their surroundings. (3) In the vertical relationship, there are more conflict elements than in the horizontal one. (4) There are more helpers from the outside than in the inside circle for the solution of their problems. (5) As a story theme, greed, wisdom, belief and family component elements are greatly involved in the stories. Among their beliefs, there are a lot of wisdom and greed themes, while piety and royalty to parents and conflict against stepmothers are among the family components. All of these would be an archetype of Korean culture, which can play an important role not only to understand Korean lifestyle for the multi-cultural families, but also to learn and practice bibliotherapeutic values.

키워드: 한국전래동화, 이중언어 그림책, 독서치료적 가치, 독서치료적 상황 분석, 다문화가정, 다문화교육  
Korean Folk-tale, Picture Books in Bilingual(Korean & English), Bibliotherapeutic Value,  
Analysis of Bibliotherapeutic Situation, Multi-Cultural Family, Multi-Cultural Education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352-H00004).

\*\* 창원문성대학 문헌정보과 교수(ksk2012@cmu.ac.kr)

논문접수일자: 2012년 7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12년 7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8월 25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3): 271-295, 2012.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3.271]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늘날 전지구적 현상이 되고 있는 다문화사회에서 한국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국제결혼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이주 여성과 혼혈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새롭게 유입되는 외국인 구성원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다문화사회의 이행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추정되는데, UNESCO와 OECD는 이미 한국을 다문화국가, 이민국가로 분류하고 있다(한진상 2007).

우리나라의 다문화현상은 2000년 이후 한국 문화와 외국문화가 혼재하는 소위 '다문화가정'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져 있으며, 특히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인 경우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므로 언어발달이 지체되는 경향을 보이며(오성배 2005), 문해력 또한 저조하여 수업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를 유발하는 등 심리장애의 원인이 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한편, 미국에서 아시아계 한인들은 비교적 성공한 이민자집단으로서의 '모델 마이노리티(model minority)<sup>1)</sup>'이지만, 이러한 이미지 때

문에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관심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즉 모델 마이노리티라는 인식은 아시아계 학생들 중 제한된 영어 능력으로 인해 학교 내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를 겪는 학생들, 인종차별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는 학생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실제 학력과 경제적 수준은 높지만,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결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전히 소수자로서의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한인들은 종족자원을 이용한 종족경제에 의존도가 높다. 사회적 지위 또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사회구조의 상층에 있는 지배집단과 하층에 있는 다른 소수민족들과의 중간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조현미, 배유리 2008).

결국 아시아계 미국인들로서 한인들은 미국의 주류집단으로 진입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낀다. 한 예로, 2007년에 있었던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심리·정서적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조승희처럼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간 '이민 1.5세대'는 언어와 문화의 단절에서 오는 충격과 정체성 혼란을 누구보다 심하게 겪는다고 한다. 생계에 바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과 대화하기도 쉽지 않은 게 이민사회의 현실이다. 좋은 학교 등 외면적인 성공에만 급급한 우리 사회의 성공신화가 고스란히

1) 아시아계 미국인의 성공담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66년 1월 사회학자 William Peterson이 뉴욕 타임즈 매거진에 게재한 "Success story: Japanese American Style"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모범적 소수민족(model minority)'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부터이다. 그 후부터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의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주로 가족 및 공동체간의 강한 유대, 건전한 직업윤리, 높은 교육수준, 낮은 범죄율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민사회에 이식되면서, 많은 이들이 정신적 중압감을 겪고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한겨레 2007.4.19).

다문화사회의 전형인 미국에서 겪는 미국계 한인(Korean American)들의 가정문제와 이제 막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외면적으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내면의 문제로 볼 때는 정체성 혼란, 심리·정서적 갈등,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한 적응의 문제 등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사회통합을 위한 도구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에 주목하고자 한다. 독서치료는 참여자가 다양한 형태의 독서치료 자료를 그 자료의 특성에 따라 읽거나 듣거나 보거나 쓰면서 자료, 치료자 혹은 참여자간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식, 고찰, 병치, 자기적용의 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의 내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는 정신치료의 한 방법이다. 그리고 독서치료의 세 가지 요소로는 참여자, 치료자, 자료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 자료로서 '전래동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래동화란 대대로 내려오는 옛날이야기 중 아동을 위하여 동심의 수준에 맞게 개작, 재화한 이야기이며, 의인화와 상징을 사용하여 신비하며 풍부한 정신을 묘사하고, 인간의 무의식적인 면과 꿈, 그리고 아동의 정신과의 관련을 보여 주는, 민족의 문화와 정신의 원형(archetype)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다(조수선 1997).

전래동화는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신화, 전설, 민담, 우화, 옛이야기 등 설화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전래동화에 관한 연구들은 관점의 차이

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동화의 기본내용이 서로 유이(類以)하다는 점과 그 내용이 인간에게 내재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 특성인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학으로 전래동화를 본다면 인류의 다양한 경험과 사고를 표현·전달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문학으로서 전래동화는 그 사회의 언어, 풍습, 역사 그리고 문화적 전통에 따라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문학으로서 세계 각국의 문학으로서 전래동화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보편적 특성도 갖고 있지만 각각의 국가, 사회가 지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전통과 특성에 따라 개별성을 지니고 있다(김경중 1997).

이처럼 전래동화는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지니고 있어 다문화교육의 교재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래동화는 보편적이면서도 독특한 성격을 지닌 주인공과 사건을 통해 인간이 지닌 심리·정서적 문제 및 성장에 따르는 과제를 간접 경험하게 하여 독서치료의 원리인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을 경험함으로써 독자(혹은 청자)로 하여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독서치료에도 적절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시대에 다문화가정에서 겪고 있는 심리·정서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독서치료 자료로 전래동화의 가치와 특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 내면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는 전래동화의 치료적 가치를 탐색하여, 이를 토대로 한국전래동화의 주인공의 상황<sup>2)</sup>을 추출하고, 독서목록 작성을 위한 상황요소를 분석하여 전래동화가 독서치료는 물론

다문화교육 자료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1.2 연구의 내용, 방법과 범위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래동화의 특성과 다문화 및 치료적 가치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교육과 독서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이중 언어(영어와 한국어)로 출간된 한국전래동화를 수집, 선정한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 정서와 문화의 이해, 언어습득과 동시에 그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을 전래동화를 통해 습득하고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결혼이민자 가정과 해외동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셋째, 이중 언어로 출간된 한국전래동화를 분석하여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을 추출하여 상황을 분석한다. 독서치료를 위한 목록 개발에 있어 아직 한국전래동화는 그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 연구를 통해 독서치료 자료의 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독서치료의 참여자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위해 연구의 대상과 방법

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과 미국에서 출간된 이중 언어(영어-한국어)로 편찬된 27편의 한국전래동화이다. 수집할 이중 언어 한국전래동화는 Book Review Digest Data Base, OCLC WorldCat, ERIC(Education Resources Information Center)과 국내 모든 출판물을 납본받는 국가 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목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되었으며, 이 중 시중에 유통되는 출판물<sup>3)</sup>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선정된 이중언어 한국전래동화들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하여 독서치료를 위한 목록을 개발하기 위해 상황 요소를 개발,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 내용분석은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이며, 연구자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간접적으로 참여자의 입장이 되어 이야기 구조를 문제 상황 요소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이라 함은 한국사회에서는 국제결혼가정<sup>4)</sup>을 일컬으며, 해외동포 혹은 미국사회에서는 한인가정을 일컫는다.

둘째, 이 연구에서 전래동화라 함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로 신화, 전설, 민담 등 민간설화 중에서 동심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이야기’

2) 독서치료에서 상황이란 “사람들에게 책을 권할 때 고려하게 되는 독서자의 조건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영유아기부터 성장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에게 형성된 내재적 자아 및 심리가 현재적 상태로 연결되면서 표출되는 심각한 정신적 갈등상황과 이로 인한 사회적 처지”를 말한다(한윤옥, 2004.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기초적 요건에 관한 연구Ⅱ: 사례분석을 통한 상황설정 및 분류체계 예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253).

3) 이를 위해 국내의 인터넷 서점과 미국의 아시안 자료 전문 인터넷 서점 및 아마존을 활용하였다.

4)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범주는 크게 세 집단으로 나뉜다. 첫째,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혹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국제결혼가정, 둘째, 외국인근로자가정으로, 이주노동자인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였거나 외국인 남성이 그들의 자국에서 결혼한 후 한국에 이주한 가정, 그리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로서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셋째, 탈북자 출신의 남성과 여성으로 결합된 가정이거나 탈북자 출신 남성 혹은 여성이 한국의 여성 또는 남성과 결합한 가정, 그리고 탈북자 출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새터민가정을 말한다(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로서 설화 중에서 아동을 위해 재화한 옛이야기로 한정하여 다룬다.

셋째,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 분석은 선행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상황 혹은 처지를 염두에 두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전래동화의 등장인물<sup>5)</sup>이 처한 상황 혹은 처지로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즉 현실의 인물이 아니라 전래동화 속의 가상인물의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전래동화가 가진 인간 정신의 보편성에 근거를 둔 것이다.

넷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래동화는 한국과 미국에서 출간된 이중 언어(영어-한국어)로 번역된 한국전래동화이며, 자료의 형태는 삽화가 들어있는 그림책<sup>6)</sup>의 형태로 한정한다. 이는 해외동포가정에서 활용은 물론, 한국의 외국인 체류자<sup>7)</sup>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세계화 시대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번역된 한국전래동화를 세계에 알린다는 의미도 있다.

다섯째, 이중 언어로 출간된 전래동화책의 이야기들은 단일 언어(한국어 혹은 영어)로도 출간된 여러 이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중 언어(영

어-한국어)로 번역된 출판물로 한정하여 내용 분석하고, 단일 언어(한국어 혹은 영어)로 출판된 같은 내용의 전래동화와의 내용비교는 하지 않는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글과 그림의 정확성이나 수준에 대한 평가는 제외한다.

### 1.3 국내·외 연구동향

다문화시대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은 특정 중심 세력의 가치 중심화보다는 각 개인의 특정 배경을 존중하고 가치화하려는 다원주의 또는 다양한 문화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공존을 지향하는 다문화주의의 관점을 취해야 한다. 비록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단일언어를 강조하면서 이주자들의 문화를 소극적으로 대하는 배제주의 모델을 취했지만, 앞으로는 북미의 캐나다나 미국처럼 다원주의에 입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한운옥 외 2008).

전래동화는 아동에게 다양성과 보편성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공존의 가치를 가르치는 다문화교육과 인간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독서치료에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5)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같은 또래 아이만큼 그 내용 속에 담긴 문제의식이나 그 가치를 내면화하는데 효과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인전처럼 뛰어난 인물을 통해 드러나는 교훈보다는 전래동화의 것은 훨씬 자연스러우며 아이들이 마주하는 현실과 가깝기 때문이다. 즉 대체로 슬기롭고 지혜롭거나 다소 모자란 또래 아이의 등장은 독자인 아이들에게 동일시를 쉽게 이루게 하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지향해야 할 도덕적, 윤리적 삶의 전범으로 작용하며 거부감이 적다(한대규, 2006. 『아이 주인공 전래동화 연구: 한국전래동화에 나오는 아이상과 교육적 활용방안』,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96).

6) 그림책은 일반적으로 유아를 위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림책의 수준은 상당히 다양하다.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어우러져 글이 모두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그림이 보완해 주며, 그림으로 정확한 의사전달이 안되는 것은 글이 보완해줌으로써, 상황에 따른 문해력(literacy) 습득에 적합하다.

7)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총 외국인 수는 2008년 3월 현재 1,118,495명이며, 그 중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인(550,105)과 한국계 중국인(367,147)이고 그 뒤를 이어 미국(114,808), 베트남(74,564), 필리핀(50,894), 태국(46,858), 일본(35,746), 몽골(34,245), 인도네시아(26,074), 대만(26,057), 우즈베키스탄(20,172) 순으로 나타났다(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 2008. 3).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이주민들의 상위 7개 국어는 중국어, 국어,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순이다.

즉 전래동화는 아동들에게 들려주는 옛이야기라고 불리는 만큼 아동들에게 현실적 제약이나 무능력에 따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나 무의식적 문제를 해결해 주며(심성경 외 2003; Bettelheim 1998), 선과 악의 대립된 구성을 통해 도덕성이 미발달된 아동의 사고, 행위, 감정, 사실과 가치 등을 함께 고려하는 도덕성 통합을 계발시켜 주기도 한다(이유라 1999; 정대련 1989; Howarth 1989)는 교육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동화가 발생할 당시의 그 지역 민족의 생활, 경험, 의식, 가치관등을 반영하는 민족의식의 결정체로서 옛문화를 보전하는 데 보다 근본적인 교육적 가치가 있다(손동인 1984; 이유라 1999; 현은자, 김세희 2005). 이에 Culliman & Galda(1994)는 아동기 문학을 통하여 다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과 자신의 공통점,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며 문화의 독특성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였고, Yokota(1993; 이 경우 외 1995, 재인용)는 여러 나라의 문학작품은 모든 문화가 공유하는 기본적인 가치관과 경험이 있다는 것과 각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도록 돕는 간접 경험을 제공한다(천희영 외 2008, 재인용).

전래동화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많은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와 관련된 다문화 관련 전래동화 선행연구들과 전래동화를 활용한 독서치료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전래동화를 다문화 관점에서 연구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구선희, 유승금(2008)은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문화 교육에서 전래동화의 적절성을 시사하며 수업내용을 제시하였다. 전래동화는 동일한 내용이 세계 각국에 널리 퍼져 있고 어휘와

문법, 문화적 요소들을 교육하기에 유용하며, 주제가 도시와 농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주제에 따른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어휘 학습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문화교육을 제안하였다. 김영주(2008)는 국내 다문화가정 및 재외동포 가정의 아동을 위한 한국어교육교재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제2언어로 배워야 하는 다문화 환경의 아동들에게 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한국전래동화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교육방안을 구축하고, 교재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희연(2006)은 이야기 구조가 유사한 우리나라 전래동화와 서구의 전래동화 두 가지를 선정하여 그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래동화를 통한 문화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교육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천희영 외(2008)의 연구는 다문화교육매체로서 동남아 3국 -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 전래동화 각각 20편을 내용과 외형적 구조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세계가의 전래동화의 차이점 속에서도 유사점이 있다는 것은 전래동화가 각각의 문화가 공유하는 기본적인 가치관과 경험이 있으며, 다양한 문화복합체 속에 살고 있는 현대 아동들에게 단순히 문화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다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전래동화가 문학적 접근에 의한 다문화교육을 위한 효과적 매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Lila(1991)는 전래동화의 교육적 가치를 다문화적 측면으로 조명하여 전래동화를 문학의 황금요소로 보았다. 모든 문화에는 구전되거나 책으로 전해져 오는 많은 전래동화가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은 각자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자료라고 하였다. 전래동화를 통한 교육은 다문화교육이 자칫 문화의 이해가 아닌 차이를 가져오고 오히려 우월성이나 열등감을 심어 줄 수 있는 것을 막고, 유아들이 전래동화 속에 나타난 문화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인식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교육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Wardle(1996)은 다문화교육에는 다양한 민족집단들의 특성이 반영된 책이나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유아들에게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다문화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전래동화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Baker(1994)는 무엇보다 전래동화가 다문화교육을 위해 좋은 자료인 것은 전래동화 속에는 민족적 정서와 가치 그리고 생활양식이 잘 스며있으며, 유아들이 이러한 전래동화를 반복해서 즐긴다는 사실이다.

한편, 전래동화를 독서치료와 관련하여 분석 혹은 활용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숙자(2006)의 연구는 형제간의 갈등 해소 과정에 대해 전래동화를 활용하여 독서지도방법론을 모색한 연구였다. 활용된 자료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홍부전'이다. 전자는 '동생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을 가진 형의 입장'으로, 후자는 '형에 대한 불만을 가진 동생의 입장'으로 한정하여, 독서치료과정인 'R(인식)-E(고찰)-J(병치)-A(자기적용)'의 4단계를 적용시켰고, 여기에 문학학습에 사용되는 '반응중심 학습법: 반응 준비하기-반응 형성하기-반응 명료하기-반응 심화하기'의 4단계를 대치하여 활용한 독서지도방법을 제시하였다. 실제 임상적 사례를 든 연구가 아니라 활용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며,

전래동화의 문학치료적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이다. 봉서운(2008)은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반응하는 전래동화의 인물 특성에 따른 독서치료 원리인 동일시, 카타르시스 및 통찰 반응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전래동화 인물과 인물 특성에 따른 동일시, 카타르시스 및 통찰에서 전반적으로 유의한 연령차와 성차가 나타났으며, 이는 독서치료 자료 선정시 내담자의 특성과 주변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연구는 경험적 방법을 통해 독서치료의 세 원리와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전래동화 인물에 대한 통찰에 동일시와 카타르시스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 독서치료의 치료적 근거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Bauer(1977)의 연구는 독서에 있어 치료를 요하는 28명의 7학년 학생(중학생)들을 대상으로 28개의 전래동화를 읽게 하여 그들의 태도 변화를 살핀 연구이다. 청소년들에게는 독서치료 자료로 전래동화가 사용되었을 때 세 명의 참여자 외에는 태도 변화에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는 전래동화 이외의 그들의 상황을 다양하게 표현한 다른 유형의 자료가 필요하며, 전래동화는 다른 연령의 아동에게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Ford, Donna etc.(2000)의 연구는 다문화 문학(multicultural literature)을 우수한 흑인학생들과 소수인종 학생들에게 읽게 하여 독서치료를 실시하였을 때 이들의 자기이해, 자기인식 및 자존감이 향상되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이들에게 추천된 다문화 문학 자료들을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담은 요소로 분석하여 제시

하였다. 다문화문학은 학생들에게 해방감은 물론 소속감을 주며, 이를 통해 모든 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문학을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다문화문학은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게 하는 힘이 있다고 확신하였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다문화교육 및 독서치료와 관련하여 전래동화의 다양한 활용가치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전래동화를 발달적, 교육적, 심리적, 정신분석적 시각에서 분석한 선행연구<sup>8)</sup>에서 전래동화의 치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승문학으로서 다문화적 가치를 가진 전래동화의 독서치료적 가치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전래동화를 독서치료 현장에서 활용할 때, 독서치료 자료로서 전래동화의 치료적 가치를 탐구하고자 한다. 다문화사회에서 여러 가지 적응 및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및 재외동포 가정을 위해 민족 정체성 확립을 통한 자아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전래동화가 독서치료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상황별 목록의 제시가 유용하다. 독서치료에서 상황별 목록은 한윤옥(2003/2004)의 기초 연구를 기초로 이미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간된 바 있다.<sup>9)</sup> 그러나 이

때 활용된 독서치료용 자료는 성인용으로는 주로 자가치유서(self help book)가 선정되었으며, 어린이, 청소년 자료로는 주로 창작동화와 창작그림책이 활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에 더하여 독서치료적 상황을 추출·분석하기 위해 전래동화를 활용하고자 한다.

오늘날 전래동화는 그 자체가 문학작품일 뿐만 아니라 교육, 미술, 음악, 영상예술, 관광상품 등의 아이디어원으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유소영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더해 치료적 제재로서 활용함으로써 문학 및 문화유산으로서 전래동화가 현대인의 복잡하고 다변하는 내면세계를 재해석하는 치료적 도구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우리 정신문화 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전래동화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특히 그 특성상 어른과 아이, 세대와 세대, 문화와 문화를 매개하는 독서지도 및 독서치료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전래동화의 유해성의 논란<sup>10)</sup>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시대에 전래동화의 현대적 재해석, 치료적 재해석을 통해 전래동화가 시대정신(특수성)과 인간 무의식의 원형(보편성)이 균형감 있게 재창조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8) 조희숙. 1995. 한국전래동화의 발달심리적 분석: 입사적 성격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논총』, 5: 47-65.; 조희숙. 1998. 한국전래동화의 사회심리학적 해석: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논총』, 8: 1-15.; 김춘경. 1998. 동화의 치료적 힘을 이용한 놀이치료. 『놀이치료연구』, 2(2): 20-33.; 조수선. 1997. 『한국전래동화와 독일 전래동화의 정신분석적 비교연구: Freud와 Jung의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9) 한국도서관협회.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성인용(2004), 청소년·어린이용(2005), 증보판(2007). 동협회(비매품).

10) 역사적으로 볼 때, 서양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민간설화의 재화인 전래동화의 유해성 논란은 적지 않았고 지금도 전래동화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예로는 신데렐라나 콩쥐팥쥐 등의 이야기에서 여성을 비하하여 수동적이며 종속적 역할에 묶어 두고 있다고 보는 견해나, 또는 전래동화의 인물 설정이 언제나 선악이 선명하게 대립되어 있어서 사물을 흑백으로만 보는 단순논리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므로 독자의 사고력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 등이다(유소영. 2003. 우리나라 전래동화연구의 서지적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257-258).

## 2. 전래동화의 가치

### 2.1 전래동화의 다문화적 가치

전래동화에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다. 아동들은 전래동화를 듣고 성장하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민족의 얼을 깨닫고, 조상의 지혜를 배워나갈 수 있다. 인류학자들은 전래동화를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는 사회의 결속체라 하였다. 전래동화를 통해서 같은 가치관과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그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박혜성 1997). 전래동화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가면서 그 사회 구성원의 마음에 내면화되고, 내면화된 정신은 그 나라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또다시 새로운 문화를 이루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래동화의 내용을 분석하는 일은 전래동화가 생성되었던 시대의 삶의 양식, 즉 문화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의미 통로가 될 수 있다. 전래동화 속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전래동화가 아동들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동들은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재화된 전래동화를 즐거움을 가지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이야기 속에 자신들의 소망을 투사하고 현실적인 갈등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 전래동화는 유아들에게 삶의 가치관과 도덕적인 교훈들을 재미있는 이야기의 형식으로 전달함으로써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들을 전수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조희연 2006).

무엇보다 전래동화가 다문화교육을 위해 좋은 자료인 것은 전래동화 속에는 민족적 정서와 가치 그리고 생활양식이 잘 스며있으며, 아동들이 이러한 전래동화를 반복해서 읽고 즐긴다는 데 있다. 전래동화는 아동들에게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지식과 긍지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전래동화를 통해 문화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포용력과 가치를 인식시켜 준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아동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심감을 갖게 함으로써 아동들을 둘러싼 사회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문화는 가족의 전통, 종교 그리고 영웅과 음악의 요소들, 그리고 이상과 신념의 총합으로 각국의 언어 속에 녹아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아동들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정보교류나 매스컴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들은 자기 자신과는 다른 민족, 언어, 그리고 생활양식과 가치체계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학습해야 하므로, 아동들이 서로 다른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돕는 일은 중요하다(조희연 2006). 그러므로 전래동화는 각 민족의 문화적 다양성과 보편성을 언어를 통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데 다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 2.2 전래동화의 치료적 가치

아동은 자라면서 상징적 기능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심리적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치를 형성하게 되며 성숙한 개체로 발달해 가는데, 그 심리적 성격에 깊은 영

향을 주는 것이 부모이며 문화적 유산이다(이연섭 1991). 사회·문화적 유산을 물려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자연스럽고 친숙한 것 중의 하나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삶의 의미 체계라 할 수 있는 동화를 통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심리적·민족적 원형을 그대로 반영시켜 주는 것이 전래동화라 할 수 있다. 전래동화는 아동의 심리적 고통이나 성장 불안을 무의식의 세계에서 고통스럽지 않게 배출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해주어 아동의 심리적 성장에 공헌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가 된다(서봉연 1991). 또 심리학자들 중에는 전래동화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갈등이나 갈망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즉 부모에 대한 외디푸스적 사랑, 부모 권위에 대한 증오감, 형제 자매간의 사랑과 질투 등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을 상징화한 것이 전래동화이다(장영희, 이상규 1987).

Bettelheim(1976)은 전래동화에서 삶의 다양한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무의식 중에 제공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을 발견하였다. 전래동화는 신기하고 초자연적인 소재들을 다루면서 단순히 도덕적·윤리적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동들에게 간접 경험을 통하여 만족을 느끼게 해 주고, 현실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 있도록 아동들의 무의식적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것이다(조수선 1997).

전래동화가 민족정신 고취, 도덕, 윤리 교육 면에서 가치가 있으며, 특히 그 심리적 영향 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공통된 사실이다. 전래동화가 국제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초문화적인 것

으로 보편성과 다양성을 지님으로 해서, 외국이나 한국의 전래동화가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는 것도 있는 반면, 한국전래동화에만 있는 특징적인 것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과 독일의 전래동화를 비교, 연구한 여러 연구(김경중, 김재숙 1996; 김인에 1995; 서봉연 1991)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전래동화가 가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조수선 1997).

첫째, 한국전래동화에는 효도와 조상숭배의 주제를 가진 이야기가 많다. 둘째, 한국전래동화에는 부모-자녀간의 강한 유대 내지는 의존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한국전래동화에는 서구에 비해 성적(性的) 성숙과정과 이성애에 대한 접근의 욕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이야기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또 성적 성숙의 과정으로 '결혼'이 한국의 경우 사건의 발판 역할을 하는 반면, 서구 전래동화에서는 고난과 모험의 끝부분에 주어지는 보상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넷째, 아동들은 동화 속의 주인공들에 대한 동일시를 통하여 분노, 시기, 복수심 같은 부정적 감정을 표출한다. 그러나 한국 동화의 경우 약한 자는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기 어려워한다. 즉 한국은 감정의 분출구가 없는 억압의 문화라 할 수 있다. 다섯째, 한국의 경우 주인공들은 결말에서 가서 현실세계로 돌아오지 않고 환상의 세계에 머물러 있기도 한다. 여섯째, 한국전래동화의 경우,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적 경향에서, 동물로부터 인간으로의 변신을 모티브 내지 소재로 한 동화들이 많은데, 이것은 인간은 사후에도 그 영혼이 동물로 바뀔 것이라는 잠재적 소망이 숨어있다. 여기에는 불교적 윤회사상의 맥이 깔려 있는 듯하다. 이러한 특징은 결국 전래동화의 성격을 인간적인 노력이나 미덕에 의한 현실 개

선을 도모하는 권선징악적 계통성으로 이끌고 있다.

각 나라 문화의 차이에 의한 주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전래동화의 심리발달적인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심리적 측면과 전래동화의 특징적 요소들이 일치함으로써, 전래동화는 아동에게 민중정신을 고취시키고 문화적인 유산을 전해주며 옛사람들의 도덕성이나 정서를 전달시켜주는 도덕적·윤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둘째, 건강한 인간의 발달과정을 상상의 세계로 나타냄으로 아동의 자아확립을 통한 심리적 독립과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준다. 셋째, 아동들의 경험을 확산시켜주고 풍부하게 해준다. 넷째, 무엇보다 전래동화는 아동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희망을 불어넣어주어 후의 아동생활을 풍요하게 함으로써 아동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조수선 1997).

한편, 동화를 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동화가 외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으면서도 동화속의 아이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랑, 질투, 미움, 모험 같은 것을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는데 있다. 어린이는 성장함에 따라서 성장단계에서 자신이 해결해야만 될 여러 가지 심리학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동화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성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래동화를 살펴보면 정신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모에 대한 아동의 투쟁, 부모의 이상화, 성에 대한 대처, Adler의 개인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아동의 계통적, 개체발생적, 사회적 열등감의 문제와 이를 보상하기 위한 우월의 추구 노력, 잘못된 보상 결과인 우월콤플렉

스와 열등콤플렉스의 문제, Jung의 분석심리학에서의 개성화의 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동화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을 간결하게 요점만 따서 얘기해 주어 아동으로 하여금 인생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도록 돕는다. 즉 동화의 줄거리가 아이들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한 아이들이 어느 시기에 만나게 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사실과 동화에서 주인공이 당하는 어려움과 상처받는 내용이 동화를 듣는 아동의 문제와 유사할 경우 아동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또 동화의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동화에서 제시하는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자신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 또한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특징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건전한 자아개념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등의 여러 요소들이 아동에게 치료적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화가 가지는 최대의 이점 중의 하나는 아이들의 무의식의 세계에 직접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동화가 얘기하려고 하는 의미를 구체적인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직감적으로 그들 나름대로 그 의미를 감지하고 있다. 꿈과는 달리 동화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할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준다(김춘경 1998).

따라서 전래동화는 그것이 만들어진 속성상 이야기를 듣거나 읽음으로써 아동들이 주인공과 동일시를 통해 무의식 세계를 직면하고 생활 방식을 탐구하면서 자신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치료적 가치를 지닌다.

### 3. 한국전래동화의 독서치료적 상황 분석

독서치료에서 상황별 독서목록이란 독서매체를 통해 독자들의 심리적 문제별로 이를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의 독서목록을 의미한다.

#### 3.1 한국전래동화의 선정

이중 언어로 출간된 한국전래동화의 이야기들은 단일 언어(한국어 혹은 영어)로도 출간된 많은 이본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중 언어(영어-한국어)로 번역된 출판물로 한정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단일 언어(한국어 혹은 영

어)로 출판된 같은 내용의 전래동화와의 내용도 비교하지 않는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글과 그림의 정확성이나 수준에 대한 평가는 제외한다.

한국과 미국에서 출간된 이중 언어(영어-한국어)로 편찬된 한국전래동화 목록은 2009년 12월 현재 Book Review Digest Data Base, OCLC WorldCat, ERIC(Education Resources Information Center)과 국내 모든 출판물을 납본받는 국가 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목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할 것임으로 책 자체보다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전래동화책이다.

<표 1> 선정된 이중언어 한국전래동화 이야기

순번	이야기제목(한국어:영어)	저자	출판사	출판년
1	콩쥐 꾀쥐: Korean Cinderella	Illus. by Choi, Dong Ho; Story Ed. by Edward B. Adams	서울국제출판사: Seoul International Publishing House	1982
2	해님 달님: Mr. Moon and Miss Sun	Illus. by Kim Yon-kyong; Adapted by Duance Vorhees & Mark Mueller	한림: HOLLYM	1990
3	견우와 직녀: The Herdsman and the Weaver			
4	홍부와 놀부: The Two Brothers	Illus. by Ho-Hyun Han; Story by Ken Methold · Eung-Cheon Hah	Compass Publishing	2007
5	심청전: The Sacrifice of Sim Cheong			
6	홍길동: The Legend of Hong Kil-dong			
7	장화홍련전: The Two Ghosts			
8	황소가 된 사나이: The Man Who Become a Cow			
9	호랑이와 귤감: The Tiger and the Persimmon			
10	청개구리: Blue Frog			
11	거북이와 토끼: The Sea Turtle and the Hare			
12	나무꾼과 까치: The Woodcutter and the Bird	Illus. by Ho-Hyun Han; Story by Ken Methold · Eung-Cheon Hah	2007	
13	단군: Dangun			
14	고주몽: Go Jumong			
15	바닷물이 왜 짠고 하니: Why the Sea is Salty			

순번	이야기제목(한국어:영어)	저자	출판사	출판년
16	젊어지는 샘물: The Spring of Youth	Adapted by Duance Vorhees & Mark Mueller; Illus. by Kang Mi-sun	Hollym	2007
17	북두칠성이 된 형제들: The Seven Brothers and the Big Dipper	Adapted by Duance Vorhees & Mark Mueller; Illus. by Park Mi-son		2007
18	도깨비 방망이: The Ogres' Magic Clubs	Adapted by Duance Vorhees & Mark Mueller; Illus. by Kim Yon-kyong		2004
19	우렁이 아가씨: The Snail Lady	Adapted by Duance Vorhees & Mark Mueller; Illus. by Kang Mi-sun		2007
20	요술항아리: The Magic Vase			
21	심술꾸러기공주: The Greedy Princess	Adapted by Duance Vorhees & Mark Mueller; Illus. by Park Mi-son, Kim Yon-kyong		2005
22	호랑이를 골려준 토끼: The Rabbit and the Tiger			
23	나무그늘을 산 총각: The Man 誰 Bought the Shade of a Tree			
24	나무도령: The Son of the Cinnamon Tree	Adapted by Duance Vorhees & Mark Mueller; Illus. by Kang Mi-sun, Kim Yon-kyong		2004
25	당나귀 알을 산 농부: The Donkey's Egg			
26	선녀와 나무꾼: The Woodcutter and Heavenly Maiden	Adapted by Duance Vorhees & Mark Mueller; Illus. by Park Mi-son		2005
27	불개: The Firedogs			

\* 이상 27개. 이중 언어 한국전래동화는 한국과 미국에서 함께 구할 수 있는 간행물이다.

### 3.2 한국전래동화의 상황 분석

〈표 1〉에 선정된 이중 언어 한국전래동화들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하여 치료적 상황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때 내용(혹은 상황) 분석의 기준은 먼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황별 독서목록을 작성하고, 이어서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을 개발한 한운옥(2003)의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가지 분류기준을 따르고자 한다. 즉 1차 생물학적 요소(성별, 연령별), 2차 공간적 요소(가정, 학교, 직장), 3차 관계적 요소(수평적, 수직적, 단독관계)로 계층적 분류지를 만들어나간다. 이에 전래동화의 특성과 맞지 않는 부분은 천희영 외(2008)의 연구를 참조하여 생물학적 요소는 주인공유형으로 바꾸고,

사람(남/여), 생물/무생물, 초현실적 존재, 기타 알 수 없는 경우로 더 세분화한다. 그리고 연령 부분에서도 성인/아동/성장(주인공이 성장해가는 경우)/미상으로 더 세분화한다. 공간적 요소에서는 가정은 그대로 두고, 학교를 친구(혹은 또래)로, 직장을 사회로 수정한다. 관계 요소는 그대로 활용한다. 나아가 사건해결방식과 주제를 더 추가한다. 사건해결방식은 독서치료의 원리에서 통찰(insight)에 도움이 되기 위함이며, 이에 박영자(1994)가 나눈 자력해결/조력해결/자연해결/미해결의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한다. 그리고 주제 분석은 Hall & Rhomberg(1995)가 제시한 유아들의 10가지 편견, 즉 능력(ability), 나이(age), 외모(appearance), 신념(belief), 계층(class), 문화(culture),

가족구성(family composition), 성(gender), 인종(race), 성애(sexuality) 영역 중 우리나라 문화와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성애와 생물학적 요소와 중복되는 나이를 제외한 8가지 편견 영역, 즉 능력이나 장애/외모/신념/문화/가족구성/성/인종/복합적 편견의 문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기준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이러한 분석 준거를 가지고 27편의 전래동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하 스토리순번은 <표 1>의 전래동화 제목의 순번으로 대체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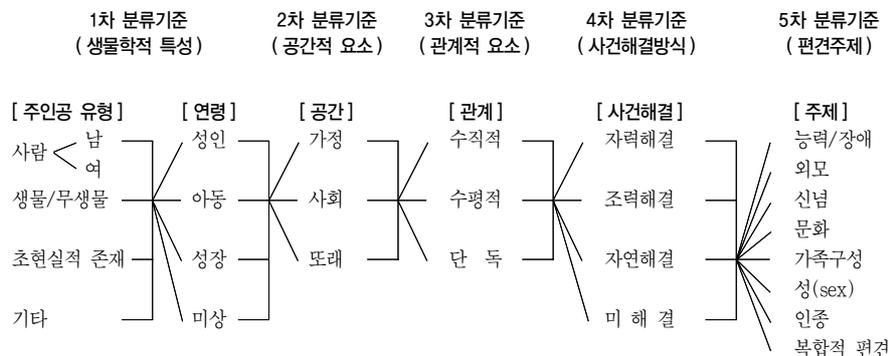
<표 2>와 같이 5가지 분석 기준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물학적 요소 중 주인공유형은 27가지 이야기 중에 남성 주인공이 등장하는 전래동화로는 <흥부와 놀부>, <홍길동>, <황소가 된 사나이>, <나무꾼과 까치>, <단군>, <고주몽>, <바닷물이 왜 짠고 하니>, <복두칠성이 된 형제들>, <도깨비 방망이>, <우렁이 아가씨>, <나무 그늘을 산 농부>, <나무도령>, <당나귀 알을 산 농부> 이상 13편(48%)으로 가장 많고, 여성 주인공은

<콩쥐팥쥐>, <심청전>, <장화홍련전>, <심술꾸러기 공주> 이상 4편(15%)이며, 남·여 주인공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해님달님>, <견우와 직녀>, <젊어지는 샘물>, <요술항아리>, <선녀와 나무꾼> 이상 5편(19%), 동물주인공은 <호랑이와 꽃감>, <청개구리>, <거북이와 토끼>, <호랑이를 골려준 토끼>, <불개> 이상 5편(19%)으로 분포되었다.

사람과 동물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주인공의 연령을 살펴보면, 어른은 <견우와 직녀>, <흥부와 놀부>, <호랑이와 꽃감>, <거북이와 토끼>, <나무꾼과 까치>, <단군>, <고주몽>, <바닷물이 왜 짠고 하니>, <젊어지는 샘물>, <우렁이 아가씨>, <요술항아리>, <나무그늘을 산 농부>, <당나귀 알을 산 농부>, <선녀와 나무꾼>, <불개> 이상 15편이고, 청소년이 <홍길동>, <황소가 된 사나이>, <청개구리>, <복두칠성이 된 형제들>, <도깨비 방망이>, <심술꾸러기 공주>와 어린이가 <콩쥐팥쥐>, <해님달님>, <심청전>, <장화홍련전>, <호랑이를 골려준 토끼>, <나무도령>으로 각 6편씩 분포되었다.

성별과 연령을 조합해 보았을 때 한국전래동



<그림 1> 전래동화 상황분류 체계도

〈표 2〉 선정된 이중언어 한국전래동화 분석

스토리 순번	생물학적 요소		공간적 요소	관계적 요소	사건해결 방식	주제
	주인공 유형	연령				
1	여	어린이	가정	수직	조력	가족구성(계모)
2	남·여	어린이	사회	수직	조력	신념(약속 - 교훈)
3	남·여	어른	사회	수직	조력	신념(약속 - 교훈)
4	남	어른	가정	수평	조력	가족구성(형제우애)
5	여	어린이	가정	수직	조력	가족구성(효성)
6	남	청소년	사회	수직	자력	문화(신분차별)
7	여	어린이	가정	수직	조력	가족구성(계모)
8	남	청소년	가정	단독	조력	신념(게으름 - 교훈)
9	동물	어른	사회	기타	자연	신념(어리석음 - 교훈)
10	동물	청소년	가정	수직	자력	가족구성(부모공경-효성)
11	동물	어른	사회	수평	자력	신념(성실 - 교훈)
12	남	어른	사회	수평	자력	신념(보은 - 교훈)
13	남	어른	사회	수직	자연	문화(창조신화)
14	남	어른	사회	수직	자연	문화(창조신화)
15	남	어른	사회	단독	미해결	신념(욕심 - 교훈)
16	남·여	어른	사회	수평	미해결	신념(욕심 - 교훈)
17	남	청소년	가정	수직	조력	가족구성(효성)
18	남	청소년	가정	수평	자연	가족구성(형제갈등-탐욕)
19	남	어른	사회	수직	조력	신념(욕심 - 교훈)
20	남·여	어른	가정	수평	조력	신념(욕심 - 교훈)
21	여	청소년	사회	수직	자력	신념(욕심 - 교훈)
22	동물	어린이	사회	수평	자력	신념(지혜 - 교훈)
23	남	어른	사회	수직	자력	신념(지혜 - 교훈)
24	남	어린이	또래	수평	조력	신념(착한마음 - 교훈)
25	남	어른	가정	수평	미해결	신념(어리석음 - 교훈)
26	남·여	어른	가정	수평	조력	가족구성(부부갈등 - 효성)
27	동물	어른	사회	수직	미해결	문화(낮과 밤 탄생)

화에는 남자 어른 주인공이 〈홍부와 놀부〉, 〈나무꾼과 까치〉, 〈단군〉, 〈고주몽〉, 〈바닷물이 왜 짠고 하니〉, 〈우렁이 아가씨〉, 〈나무그늘을 산 총각〉, 〈당나귀 알을 산 농부〉 이상 8편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여자 어른 주인공은 한 편도 없으며, 남·여 어른 주인공이 〈견우와 직녀〉, 〈젊어지는 샘물〉, 〈요술항아리〉, 〈선녀와 나무꾼〉 4편, 어른 동물 〈호랑이와 꽃감〉, 〈거북이와

토끼〉, 〈불개〉 3편이다. 청소년 남자 주인공이 〈홍길동〉, 〈황소가 된 사나이〉, 〈북두칠성이 된 형제들〉, 〈도깨비 방망이〉 4편으로 가장 많고 청소년 여자 주인공은 〈심술꾸러기 공주〉와 청소년 동물 주인공 〈청개구리〉 각 1편씩이다. 어린이 여자 주인공이 〈콩쥐팍쥐〉, 〈심청전〉, 〈장화홍련전〉이 3편으로 가장 많고, 어린이 남자 주인공이 〈나무도령〉, 어린이 남·여 주인공

〈해님달님〉과 어린이 동물 주인공이 〈호랑이를 골려준 토끼〉 각 1편씩이다.

이렇게 볼 때 선정된 한국전래동화에는 어른 남자 주인공이 10편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 청소년 남자 주인공이 4편이고, 어린이 여자 주인공과 남·여 어른 주인공이 3편으로 많은 편이다. 따라서 한국전래동화의 주인공은 어른 주인공이 많으며,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보다 많고, 여자 주인공의 경우 어린이 연령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전래동화의 주인공 분포를 통해 한국 문화의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은 남성과 어른 중심의 문화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2) 공간적 요소에는 사회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해님달님〉, 〈견우와 직녀〉, 〈홍길동〉, 〈호랑이와 꽃감〉, 〈거북이와 토끼〉, 〈나무꾼과 까치〉, 〈단군〉, 〈고주몽〉, 〈바닷물이 왜 짠고 하니〉, 〈짚어지는 샘물〉, 〈우렁이 아가씨〉, 〈심술꾸러기 공주〉, 〈호랑이를 골려준 토끼〉, 〈나무그늘을 산 총각〉, 〈불개〉 이상 15편(56%)이며, 가정 내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콩쥐팍쥐〉, 〈홍부와 놀부〉, 〈심청전〉, 〈장화홍련전〉, 〈황소가 된 사나이〉, 〈청개구리〉, 〈북두칠성이 된 형제〉, 〈도깨비 방망이〉, 〈요술항아리〉, 〈당나귀 알을 산 농부〉, 〈선녀와 나무꾼〉 11편(41%)이고, 친구 또는 또래간의 이야기는 〈나무도령〉 1편(3%) 순으로 분포되었다.

이렇게 볼 때 선정된 한국전래동화에는 사회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가정 내에서 일어난 일, 그 다음이 또래 속에서 일어난 일순으로 분포한다. 따라서 한국전래동화가 일어난 공간적 요소를 비추어 볼 때, 사회 문제와 가정 문제에 관심을 끌고루 보이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3) 관계적 요소에는 어른과 아이 혹은 상·하위신분 계층, 강자와 약자 등의 수직적 관계를 다룬 이야기가 〈콩쥐팍쥐〉(부모-자녀), 〈해님달님〉(강자-약자), 〈견우와 직녀〉(상-하위 신분), 〈심청전〉(부모-자녀), 〈홍길동〉(상-하위 신분), 〈장화홍련〉(부모-자녀), 〈청개구리〉(부모-자녀), 〈단군〉(상-하위 신분), 〈고주몽〉(상-하위 신분), 〈북두칠성이 된 형제들〉(부모-자식), 〈우렁이 아가씨〉(상-하위 신분), 〈심술꾸러기 공주〉(상-하위 신분), 〈나무그늘을 산 총각〉(강자-약자), 〈불개〉(상-하위 신분) 이상 14편(52%)이고, 수평적 관계는 〈홍부와 놀부〉(형제), 〈거북이와 토끼〉(또래), 〈나무꾼과 까치〉(사람과 동물), 〈짚어지는 샘물〉(부부), 〈도깨비 방망이〉(이웃), 〈요술항아리〉(부부), 〈호랑이를 골려준 토끼〉(동료), 〈나무도령〉(또래), 〈당나귀 알을 산 농부〉(부부), 〈선녀와 나무꾼〉 이상 10편(37%), 자기 자신의 단독 이야기는 〈황소가 된 사나이〉, 〈바닷물이 왜 짠고 하니〉(맷돌) 이상 2편(12%), 기타 관계적인 문제가 아닌 〈호랑이와 꽃감〉 1편(4%)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정된 한국전래동화에는 수직적 관계로 인한 갈등이 많으며, 그 중에서도 상-하위 신분적 갈등이 7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5편, 강자와 약자간의 갈등이 2편순이다.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또래(동료)와 이웃 간의 갈등이 4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부갈등이 3편, 사람과 동물간의 갈등이 1편순이었다. 그리고 자신과의 갈등이 2편, 분류하기 애매한 것이 1편 있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전래동화에는 신분적 갈등

으로 인한 수직적 관계의 문제와 이웃 혹은 또래와의 수평적 관계의 이야기가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4) 향후 독자로 하여금 문제와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건해결방식은 타인이나 동물 등 외부의 힘에 의해 도움을 받아서 해결되는 조력적 해결방식이 <콩쥐팥쥐>, <해님달님>, <견우와 직녀>, <흥부와 놀부>, <심청전>, <장화홍련전>, <황소가 된 사나이>, <북두칠성이 된 형제들>, <우렁이 아가씨>, <요술항아리>, <나무도령>, <선녀와 나무꾼> 이상 12편(44%)이고, 스스로 자력해결한 것은 <홍길동>, <청개구리>, <거북이와 토끼>, <나무꾼과 까치>, <심술꾸러기 공주>, <호랑이를 골려 준 토끼>, <나무 그늘을 산 총각> 이상 7편(26%),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된 자연해결 방식은 <호랑이와 꽃감>, <단군>, <고주몽>, <도깨비방망이> 이상 4편(15%)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야기가 마무리된 미해결 방식은 <바닷물이 왜 짠고 하니>, <짚어지는 샘물>, <북두칠성이 된 형제들>, <불개> 이상 4편(15%) 순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때 한국전래동화에서 문제해결방식은 대체로 외부의 힘을 빌어 해결된 이야기가 많은 편이며, 이러한 이야기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심리적 의존성을 심어줄 수 있어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읽고 나서 토론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자력으로 해결한 것은 약자의 입장에서 지혜를 빌거나 성실함과 용감함으로 상대와 맞서 싸워 승리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 독자는 문제해결에 있어 대리만족을 통해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다.

(5) 주제에는 가치관과 관련된 신념이 15편

(56%)으로 가장 많은데, 스토리를 살펴보면, <해님달님>(약속), <견우와 직녀>(약속), <황소가 된 사나이>(게으름), <호랑이와 꽃감>(어리석음), <거북이와 토끼>(성실), <나무꾼과 까치>(보은), <바닷물이 왜 짠고 하니>(욕심), <짚어지는 샘물>(욕심), <우렁이 아가씨>(욕심), <요술항아리>(욕심), <심술꾸러기 공주>(욕심), <호랑이를 골려준 토끼>(지혜), <나무그늘을 산 총각>(지혜), <나무도령>(착한마음), <당나귀 알을 산 농부>(어리석음)가 가장 많았다. 더 구체적으로는 욕심 5편, 지혜, 약속, 어리석음이 각 2편씩, 성실, 보은, 게으름, 착한마음이 각 1편씩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 다음이 가족구성과 관련된 것이 <콩쥐팥쥐>(계모), <심청전>(효성), <장화홍련전>(계모), <청개구리>(효성), <북두칠성이 된 형제들>(효성), <도깨비 방망이>(형제갈등-탐욕), <선녀와 나무꾼>(부부갈등) 이상 8편(30%)이다. 가족구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효성 3편, 계모 2편, 형제우애와 형제갈등, 부부갈등이 각 1편씩으로 나타났다. 문화 관련으로 <홍길동>(신분차별), <단군>(창조신화), <고주몽>(창조신화), <불개>(낮과 밤의 탄생) 4편(15%) 순으로 드러났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창조신화 2편, 낮과 밤의 탄생과 신분차별 각 1편씩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때 한국전래동화의 주제로는 도덕성을 내포한 가치관을 다루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욕심과 관련된 주제가 다수였다. 가족구성과 관련되어서는 효성과 계모에 대한 주제가 많은 편이며, 사회문화를 이루는 부분에서는 창조신화, 자연계의 탄생과 신분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 4. 결론 및 논의

### 4.1 결론

이 연구는 이중언어(한국-영어)로 출간된 한국전래동화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미국 및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이중언어(한국-영어)로 된 27편의 한국전래동화를 수집하였다. 27편의 전래동화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콩쥐 팥쥐>, <해님 달님>, <견우와 직녀>, <홍부와 놀부>, <심청전>, <홍길동>, <장화홍련전>, <황소가 된 사나이>, <호랑이와 꽃감>, <청개구리>, <거북이와 토끼>, <나무꾼과 까치>, <단군>, <고주몽>, <바닷물이 왜 짠고 하니>, <젊어지는 샘물>, <북두칠성이 된 형제들>, <도깨비방망이>, <우렁이 아가씨>, <요술항아리>, <심술꾸러기공주>, <호랑이를 골려준 토끼>, <나무그늘을 산 총각>, <나무도령>, <당나귀 알을 산 농부>, <나무꾼과 선녀>, <불개>이다.

이 27편의 전래동화를 내용분석을 통하여 5가지 상황적 요소, 즉 생물학적 요소(주인공유형/연령), 공간적 요소(가정, 또래, 사회), 관계적 요소(수평, 수직, 단독, 기타), 사건해결방식(자력, 조력, 자연, 미해결), 주제별(능력이나 장애/외모/신념/문화/가족구성/성/인종/복합적 편견)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전래동화는 남자 주인공이 많으며, 연령별로는 어른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공간적으로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많았으며, 수직적 관계에서 갈등을 보이고, 문제해결에서는 외부의 조력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제로는 신념과 가족구성을 다룬 것이 많았는데, 신념 중에

는 욕심과 지혜 등의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었고, 가족구성 중에는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물학적 요소 중 성별은 27가지 이야기 중에 주인공은 남성이 13편(48%)로 가장 많고, 여성 4편(15%), 남·여 주인공과 동물이 각 5명(19%)씩으로 분포되었다. 연령은 어른 15명(56%)로 가장 많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각 6편(22%)씩으로 분포되었다.

(2) 공간적 요소에는 사회 15편(56%), 가정 11편(41%), 또래 1편(4%) 순으로 분포되었다.

(3) 관계적 요소에는 수직적 관계 14편(52%), 수평적 관계 10편(37%), 단독 2편(7%), 기타 1편(4%) 순으로 나타났다.

(4) 사건해결방식은 조력적 해결 12편(44%), 자력해결 7편(26%), 자연해결 4편(15%), 미해결 4편(15%) 순으로 드러났다.

(5) 주제에는 신념 15편(5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가족구성 8편(30%), 문화 4편(15%) 순으로 드러났다. 좀더 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념은 교훈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욕심 5편, 지혜, 약속, 어리석음이 각 2편씩, 성실, 보은, 게으름, 착한마음이 각 1편씩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가족구성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효성 3편, 계모 2편, 형제우애와 형제갈등, 부부갈등이 각 1편씩으로 나타났다. 문화 주제에는 창조신화 2편, 남과 밤의 탄생과 신분차별 각 1편씩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한국전래동화의 내용적 특성은 한국문화의 원형적인 가치들이며 다문화 가족과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독서치료적 가치가 될 것이다.

## 4.2 논의

선정된 27편의 한국전래동화를 분석한 결과 독서치료적 가치와 다문화적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독서치료적 가치: 독서치료의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의 세 가지 원리를 토대로 독서치료 적용시 한국전래동화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시의 원리는 주로 등장인물의 생물학적 요소가 우선 작용하며, 참여자가 처한 사회적 처지와 문제 요소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전래동화를 독서치료에 활용할 때 우선 참여자의 생물학적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동화를 활용하고, 참여자의 심리적 갈등 공간, 관계적 요소와 참여자가 당면한 문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제를 담고 있는 동화를 선정하여 활용한다.

둘째, 카타르시스의 원리는 전래동화가 대개 기승전결의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인공은 고난을 겪다가 문제가 해결되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래동화 속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

셋째, 통찰의 원리는 문제해결 방식과 밀접히 관련 있으며, 또한 주제와도 상관있다. 우선 문제해결 방식에서는 앞서 분석한 대로 선정된 한국전래동화는 외부의 도움에 의해 문제해결이 되는 이야기가 많은 편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치료자가 참여자가 자기적용을 통해 고찰할 수 있도록 추후 활동이 필요하다. 한편 자력으로 문제해결이 되는 것은 그 주인공의 용기와 지혜 등을 참여자 자신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제와 관련해서 신념

을 다룬 이야기에서는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므로 도덕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면, 가족구성원에는 효성과 계모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므로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시각을 균형있게 갖출 수 있도록 좀 더 심화된 논의가 필요하다.

(2) 다문화적 가치: 이중 언어 한국전래동화의 다문화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적으로 전래동화의 다문화적 가치는 우선 전래동화 속의 민족 정서와 민족 문화를 언어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제 분야에서 다루어진 우리나라 가치관과 문화를 다룬 이야기들은 우리 조상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민족 정서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주제 부분에서 가치관, 가족구성에서 효성, 문화 부분에서 창조신화, 신분차별 등의 내용을 통해 한국인 특유의 정서와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림책으로 된 이중언어 전래동화의 다문화교육적 가치이다. 미국에서는 Mildred L. Betchelder Award(1968)를 제정하여 번역된 도서 중 각국의 문화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그림책에 수여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래동화는 이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전래동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매체이며, '세계화'를 일컫는 지금, 다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되기도 한다(조선일보 1997.2.20). 또한 본 연구에서 선정된 한국전래동화는 이중언어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문화를 반영하므로 영미문화와 우리 문화를 비교함으로써 영어사용 국가의 문화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황미진 2003).

또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2009년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과 아시아 전래동화들을

5개국 언어(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로 동화구연, 한글 자막 동영상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에 '다문화 동화구연'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로 접속<sup>11)</sup>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이를 볼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각 5개국 이중언어 전래동화를 DVD로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다국어 전래동화 애니메이션을 통해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향후 이 동화들도 내용 분석해 보면 활용도가 더욱 높을 것이다.

셋째, 이중 언어(영어-한국어)로 출간된 전래동화의 발굴은 한국어 혹은 영어를 제2언어로 배워야 하는 다문화 환경에서 어린이부터 성인에게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해외동포가정에서 활용은 물론, 한국의 외국인 체류자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세계화 시대 세계 어디서나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질 때 이중 언어 전래동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도와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넷째, 다문화가족 및 영어권 이주 한인 2세들의 언어능력 및 문해력(literacy) 증진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중 언어(영어와 한국어)로 번역된 전래동화를 언어학습에 사용할 경우, 영미문화와 우리 문화를 비교, 학습할 수 있어 두 문화권의 문화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래동화는 입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하기에 적합하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듣고, 말하기가 자연스럽게 이

루어져 음성언어 학습에 도움을 주고, 또한 그 이야기와 관련된 전래동화책을 바탕으로 읽고, 쓰는 활동까지 이어지게 되면, 문해력(literacy)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이상 한국전래동화의 독서치료적 가치와 다문화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전래동화의 독서치료적 상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 혹은 이동들이 겪는 문제 상황과 본 논문에서 제시된 8가지 주제를 연결하여 이야기를 선정하고, 그 다음 그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공간적인 요인 즉 가정, 사회, 또래(혹은 학교)과 관계적 요소인 수직, 수평, 단독의 문제인지를 연결하며,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전해결방식을 고려하고, 좀 더 강한 동일시를 위해서는 생물학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초적 연구로서 단지 전래동화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독서치료적 상황을 추출한 것이므로 활용과 적용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상황을 좀더 면밀하게 탐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그것까지 탐색하지 못한 것은 후속 연구로 남기고자 한다. 또한 향후 각국의 이중언어(베트남어-한국어, 중국어-한국어, 몽골어-한국어, 태국어-한국어 등)로 된 전래동화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전래동화 이외에 이중언어로 된 현대 어린이책들도 다문화가정과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개발의 대상으로 확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다문화 동화구연 사이트, [cited 2012.8.25]. <[http://lscn.nlcy.go.kr/mov/index\\_bak.jsp](http://lscn.nlcy.go.kr/mov/index_bak.jsp)>.

## 참 고 문 헌

- [1] 고숙희. 2008.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행에 따른 접근방안 모색: 한국인과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의 태도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1): 213-234.
- [2] 구선희, 유승금. 2008.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문화교육 방안 연구: 전래동화를 활용하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8차 국제학술대회 발제논문집』, 625-639.
- [3] 김갑선. 2006. 독서치료 관련 학위논문의 연구경향 분석: 1984-2006. 『독서문화연구』, 6: 153-187.
- [4] 김경중. 1997. 한국과 독일의 전래동화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아동문학학회』, 7(1): 114-116.
- [5] 김금희. 1999. 영어로 편찬된 한국전래동화에 나타난 어린이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3(2): 175-195.
- [6] 김세진. 2006. 『설화의 전래동화적 변모양상과 교수학습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7] 김숙자. 2006. 『R-E-J-A법에 의한 아동문학치료 방법론 연구: 전래동화 독서지도를 통한 형제간 갈등의 해소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 [8] 김현경. 2007. 『비디오를 활용한 집단 독서요법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9] 베델하임, 브루노. 2000. 『옛이야기의 매력 1, 2』. 김옥숙, 주옥 옮김. 서울 :시공사.
- [10] 봉서윤. 2008.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전래동화 인물 특성에 따른 독서치료 원리반응 비교: 동일시, 카타르시스 및 통찰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11] 오성배. 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韓國教育』, 32(3): 61-83.
- [12] 오성배. 2006. 한국 사회의 소수민족(ethnic minority), '코시안(Kosian)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16(4): 137-157.
- [13] 유소영. 2003. 우리나라 전래동화연구의 서지적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254-268.
- [14] 이지혜, 채재은. 2007. 다문화가정시대 문해교육의 대안적 접근: 영미의 가족문해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7(1): 29-52.
- [15] 임성규. 2007. 초등학교 전래동화 교육의 논리와 구비문학 교육의 시각: 이동중심 접근과 이야기문화의 회복. 『한국초등국어교육』, 34: 381-407.
- [16] 조수선. 1997. 『한국전래동화와 독일 전래동화의 정신분석학적 비교 연구: Freud와 Jung의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17]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18] 조현미, 배유리. 2008. 재미한인의 교육성취도를 통해 본 모델 마이너리티개념의 한계. 『地理學論究』, 29: 1-15.
- [19] 조희숙. 1995. 한국전래동화의 발달심리학적 분석: 입사적 성격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논총』, 5: 47-65.

- [20] 조희숙. 1998. 한국전래동화의 사회심리학적 해석: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논총』, 8: 1-15.
- [21] 조희연. 2006. 전래동화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가능성탐구. 『혜전논집』, 24: 301-316.
- [22] 천희영 외. 2008. 유아의 다문화교육매체로서의 동남아시아 3개국 전래동화의 비교분석 연구. 『미래 유아교육학회지』, 15(3): 21-47.
- [23] 최권진. 2006.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 학습 방법 연구. 『한국어교육』, 17(2): 237-266.
- [24] 최태산 외. 2006. 국내 독서치료 연구 동향: 독서치료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1988-2005). 『놀이치료연구』, 9(1): 17-31.
- [25] 『한겨레신문』, 2004. 깊은 애도와 함께 우리를 되돌아 볼 때, 4월 19일.
- [26] 한대규. 2006. 『아이 주인공 전래동화 연구: 한국전래동화에 나오는 아이상과 교육적 활용방안』.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27] 한운옥. 2003.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기초적 요건에 관한 연구: 상황설정 및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1): 6-25.
- [28] 한운옥. 2004.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기초적 요건에 관한 연구 II: 사례분석을 통한 상황설정 및 분류체계 예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250-275.
- [29] 한운옥 외. 2008.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도서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30] 한진상. 2007.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실태연구: 코시안집 아동을 중심으로. 『제3회 경기 다문화교육포럼 및 인문과학연구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91-108.
- [31] 홍원표. 2008. 타인의 시선: 미국 교실 안의 아시아, 우리의 시선은? 『教育課程研究』, 26(4): 253-274.
- [32] 황금숙. 2005a. 국내 독서치료 연구동향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117-130.
- [33] 황금숙. 2005b. 외국 독서치료 연구 동향.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2): 306-317.
- [34] 황지은. 2003. 『전래동화를 활용한 초등영어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35] Bauer, Robert C. 1977. *Effects of Folktales as Bibliotherapeutic Aids in Changing Attitudes of Seventh Grade Remedial Readers*. M.A. thesis,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 [36] Barker, Gwendolyn C. 1994. *Planning and Organizing for Multicultural Instruction*. Menlo Park, Calif.: Addison-Wesley.
- [37] Bettelheim, B. 1976. *The Uses of Enchantment: The Meaning of Fairy Tales*. New York: Vintage.
- [38] Coleman, Marilyn, & Ganong, Lawrence H. 1988. *Bibliotherapy with Stepchildren*.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 [39] Doll, Beth, & Doll, Carol. 1997. *Bibliotherapy with Young People*. Englewood: Libraries Unlimited.
- [40] Ediger, Marlow. 2002. *Children's Literature in the Language Arts*.
- [41] Forder, Donna Y., Tyron, Cynthia A., Howard, Tyrone C., & Harris, J. John, III. 2000.

- “Multicultural literature and gifted black student: Promoting self-understanding, awareness and pride.” *Roepers Review*, 22(4): 235-240.
- [42] Heuscher, J. E. 1963. *A Psychiatric Study of Fairy Tales*. Springfield, IL: Charles Thomas.
- [43] Haldeman, Edward G., & Idstein, Sandra. 1979. *Bibliotherapy*. Washington, D.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44] Hynes, A. M., & Hynes-Berry, M. 1994. *Biblio/Poerty Therapy: Interactive Process*. St. Cloud, MN: North Star Press.
- [45] Mohr, Carolyn, Nixon, Dorothy, & Vickers, Shirley. 1991. *Books That Heal: A Whole Language Approach*. Englewood: Teacher Ideas Press.
- [46] Pardeck, Jean A., & Pardeck, John T. 1984. *Young People with Problems: A Guide to Bibliotherapy*. Westport: Greenwood Press.
- [47] Philpot, Jan Grubb. 1997. *Bibliotherapy for Classroom Use*. Nashville: Incentive Publications.
- [48] Wardle, F. 1996. “Proposal: Anti-bias and ecological model for multicultural education.” *Childhood Education*, 72(3): 152-156.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o, Sook Hee. 2008. “Hanguk-ui damunhwa sahoe jinhaeng-e ttaleun jeobgeun bangan mosaek.”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9(1): 213-234.
- [2] Koo, Sun Hee, & Yoo, Seung Geum, 2008. “A research on teaching method the Korean and Korean culture for the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The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625-639.
- [3] Kim, Kap Seon. 2006. “Research trend in the Korean theses of bibliotherapy: 1984-2006.” *Reading Culture Research Institute Journal*, 6: 153-187.
- [4] Kim, Kyung Jung. 1997. “A comparative study on the traditional fairy tales Korea and German.” *The Society Korean Children Literature*, 7(1): 114-116.
- [5] Kim, Keum Hee. 1999. “The portrayal of children in Korean folk stories written in English for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nd Review*, 3(2): 175-195.
- [6] Kim, Se Jin. 2006. *A Study on the Adaptation Style of “Jeonraedongwha” and Teaching-Learning Methodology*. M.A.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7] Kim, Sook Ja. 2006. *R-E-J-A Beobe Uihan Adong Munhak Chiryong Bangbeopron Yeongu*. M.A. Thesis, Seokyeong University.

- [8] Kim, Hyun Kyeong. 2007.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Utilizing a Video on the Self-esteem and Human Relations of Schizophrenic Patients*, M.A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9] Bettelheim, Bruno. 2000. *Uses of Enchantment 1, 2*. Translated by Ok-Sook Kim and Ok Joo. Seoul: Sigongsa.
- [10] Bong, Suh Yoon. 2008. *Comparison of Study of Bibliotherapy Response According to the Character's Personality Trait of Korean Fairy Tales of Elementary Students and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Identification, Catharsis and Insight*, M.A thesis, Myongji University.
- [11] Oh, Sungbae. 2005. "A case study on the growing of Kosian children and its social environment."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2(3): 61-83.
- [12] Oh, Sung-Bae. 2006. "The implication of the 'Kosian' case for the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6(4): 137-157.
- [13] Yoo, Soyung. 2003. "A bibliographical analysis on the folktales stud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2): 254-268.
- [14] Lee, Ji-hye, & Chae, Jae-Eun. 2007.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literacy education for the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17(1): 29-52.
- [15] Lim, Sung-kyu. 2007. "Elementary school fairy tale education and viewpoint of oral literature education: Children's centered access and recovery of storytelling culture." *Journal of Elementary Korean Education*, 34: 381-407.
- [16] Jo, Su-seon. 1997. *The Psychoanalytical Comparisons between Korean Folktales and German Folktales: With the Theories of Freud's and Jung's for a Basis*, M.A.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 [17] Cho, Yeong-Dal. 2006. *Damunhwa Gajeong-ui Janyeo Gyoyuk Siltae Josa*.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18] Jo, Hyun-Mi, & Bae, Yu-Ri. 2008. "The limits of the 'model minority' within Korean Americans." *Jilihak Nongu*, 29: 1-15.
- [19] Jo, Hea Soog. 1995. "A study on developmental analysis with an initiative motif of Korean fairy tale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5: 47-65.
- [20] Jo, Hea Soog. 1998. "The psyco-social interpretations on characters of Korean traditional fairy tale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8: 1-15.
- [21] Cho, Hee Yeon. 2006. "Jeonlae donghwareul tonghan damunhwa gyoyuk-ui ganeungseong tamgu." *Hyejeon Nonjip*, 24: 301-316.
- [22] Chun, Hee Young, et al. 2008. "Comparative analyses of traditional fairy tales from three southern Asian countries for multicultural teaching materials." *The Journal of Korea Early*

- Childhood Education*, 15(3): 21-47.
- [23] Choi, Gwon Jin. 2006. "A study o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f Korean language through traditional fairy tales."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7(2): 237-266.
- [24] Choi, Tae San, et al. 2006. "The trends of bibliotherapy study in Korea: Based on published articles about bibliotherapy(1988~2005)."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9(1): 17-31.
- [25] "Looking back over us with the deepest sorrow." 2004. *The Hankyoreh*, 19 April.
- [26] Han, Dae-Kyu. 2006. *A Study on Heroic Children in Korean Traditional Fairy Tales: Characteristics of Heroic Children in Korean Traditional Fairy Tales and Ideas of Educational Applications*. M.A. thesis,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27] Han, Yoon-Ok. 2003. "A study of the basic factors of bibliographic tool for the bibliotherap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1): 6-25.
- [28] Han, Yoon-Ok. 2004. "A study of the basic factors of bibliographic tool for the bibliotherapy practices I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3): 250-275.
- [29] Han, Yoon-Ok, et al. 200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Services in Libraries*. Seoul: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 [30] Han, Jin Sang. 2007. "Damunhwa gajeong aideul-ui hakseubgwon chimhae siltae yeongu." *The 3rd Gyonggi Multicultural Education Forum & Fall Conference on KGU Institute of Humanities*, 91-108.
- [31] Hong, Won Pyo. 2008. "Others' view on us: Asia in American classrooms, how about our view on other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6(4): 253-274.
- [32] Hoang, Gum-Sook, 2005a.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bibliotherapy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1): 117-130.
- [33] Hoang, Gum-Sook, 2005b.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bibliotherapy in oversea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2): 306-317.
- [34] Hwang, Jee-Eun. 2003. *A Study of Teaching English through Korean Folktales in Elementary School*. M.A. thesis, Chung-Ang University.